

2015년 국가직 9급 ‘처’책형 해설

- 제공 : 박문각고시학원 국어 유두선 교수님

1. 처주마 → 처주마(섬을 맞추어 주다.)

정답 ①

2. ‘짧어 보인다’에서 ‘보인다’는 ‘see’의 의미가 있는 본용언이다.

정답 ④

3. ①, ③, ④는 서로 상반된 단어를 배열한 것이고 ②는 상반관계로 볼 수 없다.

정답 ②

4. ① 좌고우면 : 앞뒤를 재고 망설임

② 암중모색 :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

③ 침소봉대 :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

④ 연목구어 :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

정답 ④

5. ‘눈비’를 연결매체로 볼 수 없다. 화자의 삶의 상태

정답 ②

6. ② 서릿발(접미사), 선동이(접미사), 장난기(접미사)

③ 깎두기(단일어), 선생님(접미사), 작은형(접두사), 햇바지(접두사)

④ 시나브로(단일어), 앞뜰(접두사)

정답 ①

7.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. 따라서 이러한 때 인문학은 실질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따라서 인문학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.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②는 답이 아니다.

정답 ①

8. 주어진 자료로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, 또 그렇다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.

정답 ④

9. ‘잠’은 오히려 그리운 이를 볼 수 있다. 따라서 절망적 심정을 투영했다고 볼 수 없다.

정답 ④

10. 주어진 내용에서 액자가 그림을 보완해 준다고 말하고 있음

- ① 인과관계
- ② 행위에 새로운 의미부여
- ③ 대상에서 의미 발견
- ④ 옷으로 호감도를 결정하고 보완해 줌

정답 ④

11. '대요'는 '다고 해요', '데'는 '더라'로 바꾸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음

- ① 간대요 → 간대요
- ② 잘하대 → 잘하데
- ④ 크대요 → 크대요

정답 ③

12. ① '도외시하였기'로 붙여 쓰고 체언, '기', '은/는', '던' 뒤에서 ' 때문이다'는 띄어 쓴다.

- ② 부정어 앞에서 '밖에는'은 붙여 쓴다.
- ④ '지'는 시간 개념일 때만 띄어 쓴다. '회복될지'로 붙여 쓴다.

정답 ③

13. 앞말이 처소, 수단, 방법, 목적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낼 때에는, 조사 '에'를 쓴다.

정답 ②

14.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 삼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으니 '본말전도'가 적당하다.

- ① 격물치지 :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
- ② 본말전도 : 사물의 경중·선후·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뀔을 이르는 말
- ③ 유명무실 :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
- ④ 돈오점수 : 진리를 단번에 깨달음

정답 ②

15. ㄷ과 ㄹ이 역접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ㄱ이다. 그 뒤에 발생한 문제점에 해당하는 ㄴ이 와야 한다.

정답 ③

16. 리더십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제시된 글을 찾아야 한다.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면 많은 사람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없다.

정답 ③

17. ②는 둘째 단락에 ③은 첫째 줄에 ④는 마지막 줄에 나와 있다. 사물놀이의 가치는 나와 있지 않다.

정답 ①

18. ①은 첫째 줄에 ②는 둘째 단락의 처음에 ③은 의도가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. ④는 마지막 줄에 나온다.

정답 ③

19. ① 말을 빌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.
② 말과 같은 동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‘우의적’
③ 대상의 유사점을 말하고 있지 않았고 대상의 특성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.
④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.

정답 ③

20. 진리와 정의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말하고 있다. 넓은 의미의 유추다.

- ① 삼단논법
- ② 대조
- ③ 유비추론
- ④ 유추

정답 ④

